

조직강화로 도약 꿈꾼다

'99 직장·직능단체

- 한전반야회** 매달 이벤트...환자가족 포교
- 한통불자회** 전국조직 확대·지회창립 지원
- 교사불자연** 재가연대, 군·청소년분야 역점

98년 한해를 힘겹게 보낸 직장 직능단체들이 99년도에는 도약을 기약하며 알찬 새해사업 설계에 바쁘다.

특히 올해에는 조계종 포교원이 직장직능단체 연수회 개최 등을 통한 전국조직화를 준비중에 있어 직장 직능단체들의 연대와 새로운 변신이 기대되고 있다.

한국전력반야회는 매달 이벤트를 마련하고 한국운전기사를불자연합회와 전국금속단불자연합회는 새로운 임원단이 출범한다. 부산 불교실업인회는 관련직종 종사자의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2년차를 맞는 전국불교실업인연합회와 전국교사불자연합회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 사단법인 설

립과 재가연대활동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전력 반야회(회장 김영창)가 준비중인 매달 깜짝이벤트는 내년 10주년을 맞아 14개 단위불자회 조직과 연대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산하 자매병원인 쌍문동 한일병원불자회 창립을 통한 환자와 환자가족의 포교에도 주력한다는 방침. 이를 위해 9일 봉은사 신년하례회를 시작으로 수련대회, 창립기념 포교법회, 성지순례, 부처님오신날 특별법회, 한일병원 불교실업인회 관련직종 종사자의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2년차를 맞는 전국불교실업인연합회와 전국교사불자연합회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 사단법인 설

립과 재가연대활동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전력 반야회(회장 김영창)가 준비중인 매달 깜짝이벤트는 내년 10주년을 맞아 14개 단위불자회 조직과 연대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산하 자매병원인 쌍문동 한일병원불자회 창립을 통한 환자와 환자가족의 포교에도 주력한다는 방침. 이를 위해 9일 봉은사 신년하례회를 시작으로 수련대회, 창립기념 포교법회, 성지순례, 부처님오신날 특별법회, 한일병원 불교실업인회 관련직종 종사자의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2년차를 맞는 전국불교실업인연합회와 전국교사불자연합회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 사단법인 설

립과 재가연대활동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전력 반야회(회장 김영창)가 준비중인 매달 깜짝이벤트는 내년 10주년을 맞아 14개 단위불자회 조직과 연대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산하 자매병원인 쌍문동 한일병원불자회 창립을 통한 환자와 환자가족의 포교에도 주력한다는 방침. 이를 위해 9일 봉은사 신년하례회를 시작으로 수련대회, 창립기념 포교법회, 성지순례, 부처님오신날 특별법회, 한일병원 불교실업인회 관련직종 종사자의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2년차를 맞는 전국불교실업인연합회와 전국교사불자연합회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 사단법인 설

지 '좋은친구'를 계간으로 연 4회 발행하여 청소년 포교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대외적으로는 군법당 위문을 통한 군불교포교에 동참하는 물론 재가연대활동을 통한 활성화를 기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통신불자회(회장 김문수)도 지난해 전국연합법회를 통해 확립된 전국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지창립 전화국에 불자회 구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본사에 마련한 법당의 내부공사를 빠른시일내 마친 뒤 개원하여 중앙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부산불교실업인회(회장 서춘석)는 상공인 및 대학교수초청 강연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지역불자실업인들에게 발빠른 정보로 도움을 주고 회원확대를 한다는 방침이다.

전국불교실업인연합회(회장 손현수)는 사단법인 등록을 통한 도약을 준비중에 있어 지역불자실업인연합회(회장 하용이)는 22일 3대 운영위원장을 선출하고 수련대회 중심의 연합회 운영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백척간두에 서서 불성보자"

■10월5일 매주쓰기 울력

원주스님의 지화로 매주 쓰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대중생활이고 보니 언제나 분업은 철저히 시행된다. 콩을 쪄서 삶는 것으로부터 방앗간을 거쳐 매주가 되어 천장에 매달릴 때까지의 작업과정에서 대중 전체의 손이 분업 형식으로 거치게 마련이다.

일이 많으니 매주의 양도 많지만 손도 많으니 매주도 쉽게 천장에 매달렸다. 스무말 들이 장독에는 수년을 묵었다는 간장이 새까맣다 못해 파랗고 흰 빛까지 드러내 보이면서 꼭 차 있지만 어느 때 어떤 종류의 손님이 얼마나 많이 모여 와서 간장을 먹게 될지 모르니까 언제나 좀부히 비축해 두어야 한다는 원주스님의 지론이다.

동안거를 작성한 선방에서 겨울을 지내려면 감자와 매주 작업을 거둬야 주어야 한다는 것은 선객들의 불문을 되어있는 관습이다. 감자와 매주 울력이 끝난 다음에 온 스님들은 송구스럽다면서 낫시간에 좌선을 포기하고 땀나루 하기에 열중했다. 그러자 전체 대중이 땀나루 하기에 힘을 모았다.

상원사는 동짓달부터는 속에 파묻히면 다음해 삼월초까지는 나뭇길이 막혀버린다. 눈속에서는 나무와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땀나루는 말뚝 2쪽 좋았다. 상원사를 기점으로 반경 2km이내의 고목 넘어지는 광음이 며칠 동안 요란하더니 이십여명의 장작이 열사흘날 오후에 나뭇간에 쌓여졌다.

■10월14일 결제 하루전

결제를 하루 앞둔 날이다. 결제란 불가용어로서 안거가 시작되는 날을 말한다. 안거란 일년 네 철중에서 여름과 겨울철에 산문(절) 출입을 금하고 수도에 전력을 할한다.

하안거는 음력 4월 15일에 시작되어 7월 15일에 끝나고 동안거는 10월 15일에 시작되어 다음해 1월 15일에 끝나는데 이때 쓰이는 용어가 해제다. 흔히 여름과 겨울은 공부철이라 하고 봄과 가을은 산철이라 하는데 공부철에는 출입이 엄금되고 산철에는 출입이 자유롭다. 그래서 결제를 위한 준비는 산철에 미리 준비 되어야 한다.

선방생활과 병행생활은 피상적인 면에서 극히 유사한 점이 많다. 출진을 앞둔 임전태세의 점검이 무인의 소치라면 결제를 임하기 위한 제반 준비는 선객이 할 일이다.

선방에 입방하면 침식을 제공받지만 의류나 그밖의 필수품은 자담(自擔)이다. 월동을 위한 개인장비의 점검이 행해진다. 개인 장비비와 의류와 세면도구 및 몇건의 불서 뿐이다. 바람을 열고 내외와 양말 등속을 꺼내어 보수하면 끝난다. 사발과 목욕을 마치고 물(物)적인 것은 점검이 완료된다.

오후에 바람이 일더니 해질녘부터는 눈발이 날렸다. 첫눈이어서 정감이 다사롭다. 오늘도 선객이 여러 분 당도했다.

어름이 짙어졌다. 결제를 앞두고 좌선에 든 스님들은 동안거에 임할 마음의 준비를 마치며 점검해 본다. 밖은 초설(初雪)이 분분하다.

지허스님의 선방일기



그림·이준석

채두(菜頭 2인)-부식담당
부목(負木 4인)-맹감 담당
소지(掃地 대종일동)-청소

나의 소임은 부목(負木)이다. 소임에 대한 불만도 없지만 그렇다고 만족도 없다. 단체생활이 강요하는 질서와 규율때문이다.

결제 불공이 끝나고 조실스님의 법문이 시작되었다.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모든 것은 영원하다. 물질의 형태에서 보면 영원성은 부정되고 물질의 본성에서 보면 영원성이 긍정된다. 영원성을 부인함은 인간의 한계상황 때문이고, 영원성을 시인함은 인간의 가능성 상황 때문이다. 영원성을 불신함은 중생의 고집때문이고, 영원성을 확신함은 불타의 열반때문이다. 인간의 한계성을 배제하고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개발하여 저 눈속에서 탄생의 기쁨을 위해 조용히 배자(配子)를 어루만지는 동물처럼, 얼어붙은 땅속에서 배아(胚芽)를 키우는 식물처럼 우리도 이 삼중에 불성을 개발하여 초춘(初春)엔 기필코 건성하도록 하자. 끝내 불성은 나의 안에 있으면서 영원할 뿐이다."

법문의 요지였다.

법문을 하는 스님이나 듣는 스님들이나 견성을 위해 이번 삼중에는 백척간두에 서서 진일보하겠다는 결단과 의지가 존중해 있다. 다형질인 몇몇 스님들은 이를 악물면서 주먹을 굳게 쥐기도 했다.

법문이 끝나고 차담(茶談)이 주어지면서 입승스님에 의해 시간표가 게시되었다.

- 2시반 기침(起寢)
- 3시~6시 참선(입선 및 방선)
- 6시~8시 청소 아침식사 휴게
- 8시~11시 참선
- 11시~오후1시 오희 휴게
- 오후 1시~4시 참선
- 4시~6시 약식(저녁공양) 휴게
- 6시~9시 참선
- 9시 취침

*단 말회일(安晦日)에는 오전에 포살이 있음.

오후 1시가 되자 시간표에 의해 동안거의 첫 입선을 알리는 축비(拂子)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대축으로 만든 물건) 소리가 큰방을 울렸다. 각기 벽을 향해 결가부좌를 취했다. 고요했다.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았다. 이 삼중에 견성하겠다는 소이에서일까. 외암은 문자 그대로 면벽(面壁)처럼 미동도 없다. 그러나 그 내양(內樣)은 어떠한가.

무장하고 출진하는 무사와 같다. 우열은 전장에서 용장과 패장으로 구분되듯이 시간이 지나야 각자의 자량(資糧)과 분수가 노출되면서 공부가 익어가는 모습이 비쳐지리라.

출전 앞둔 병사마냥 선객들도 장비 점검

■10월15일 드디어 결제일

삼중결제(三冬結制)에 임하는 대중이 36명이다. 아침공양이 끝나자 공사가 열렸고 결제방이 짜여졌다. 결제방이란 결제 기간에 각자가 맡은 소임이다.

36명의 대중을 소임별로 적어보면 조실(祖室 1인)-산문의 총사(總師)격으로 선리(禪理)강화 및 참선지도 유나(維那 1인)-포살(계명과 율의) 담당 법법(乘法 1인)-제반사식(諸般施食)담당 입승(立繩 1인)-대종봉술 주지(住持 1인)-사무총괄(寺務總括) 원주(院主 1인)-사중 살림살이 담당 지전(知殿 3인)-불공(객전각)담당 지객(知客 1인)-순남안내 사자(侍者 2인)-조실 및 주지 시봉 다각(茶角 2인)-차 담당 명등(明燈 1인)-동화(燈火)담당 종두(鐘頭 1인)-타종 담당 헌식(獻食 1인)-귀객식물(鬼客食物) 담당 원두(圓頭 2인)-채소밭 담당 화대(火臺 2인)-화력관리(군불때기) 수두(水頭 2인)-식수관리 목두(浴頭 2인)-목욕탕관리 간병(看病 1인)-환자간호 별좌(別座 1인)-후원관리 서기(書記 1인)-사무서류담당 공사(供司 2인)-공양(주식)담당

청보리 키우는 '준비된 포교사'

탐방

부산교사불자연합회

부산교사불자연합회(회장 양원식·해동교 교장)는 98년 7월에 3백여명의 회원이 모여 범어사 보제루에서 창립했다. 부산교사불자회는 부처님 법을 일상생활화하고 구체적인 실행을 실천하는데 주력하며 바쁜 걸음을 걷고 있다. 초·중·고 교사들로 구성된 부산교사불자연합회는 7월 창립법회 이후 9월에 범어사 지장암에서 1차 수련회, 10월에 청소년포교기금마련을 위한 하루차집, 11월 관음사 대법회를 연데 이어 12월에는 해운정사에서 2차 수련회를 갖기로 했다.

교사들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불법을 전하기에 앞서 불교교육 대학 과정을 이수하며 불교에 대한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는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회원들은 불법을 전하기에 앞서 자기 것으로 소화하고자 하는 열의와 통하고 있다.

특히 12월 5,6일 해운정사 원통보전에서 가진 2차 수련회는



○부산교사불자회는 구립 5,6일 해운정사 원통보전에서 2차 수련회를 갖고 참선 철야정진했다.

98년 창립 회원 3백명 불교대 수학 자질 갖춰 교내 불교반 설치 주력

회원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선 철야정진을 가졌다. 진제스님의 법문과 회원간의 신행담교환 등으로 포교의 본질과 방법론을 토론하고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다. 올 3월에는 송광사 보성스님 초청법회를 가질 계획 이다.

현재 부산교사불자회는 회원 학교수와 회원수는 절대 부족하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학교수에 비해 해운대교, 동의공교, 학산여중 등 몇몇의 학교에서

만 정식 불교반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 부산교사불자연합회는 앞으로 회원 배가운동, 학교마다 불교반 설치 등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파라마타 청소년 단체의 육성을 위해 학교의 특활부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불자 교사들이 불교반을 설치 운영한다는 방안도 구상중이다.

양원식 회장은 "청소년 포교의 지름길은 교사들의 포교에 있다"고 전제하고 "미래불교에 대한 관심과 투자의 측면에서 신, 신도, 교사가 하나되어 청소년 포교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청소년 포교를 강조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2년과정)

'99학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중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기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들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14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교수

1년 교과목	인도불교사·종교불교사·한국불교사·유식사상·경토사상 반야사상·법화사상·화엄사상·불교사학특론	·무진장스님(본대현장) · 남 수 영(동국대학교수) · 계한스님(동국대학교수) · 김 상 현(동국대학교수) · 모주스님(동국대학교수) · 장 위 위(동국대학교수) · 박 종(법정법원연구원) · 권 반 권(동국대학교수) · 보학스님(승가대학교수)
2년 교과목	불교학개론·선종사상·불교미술·명교사상·포교방법론 근본불교·대승불교·비교종교론 불교상대론	·암도스님(국립중앙대) · 권기중(동국대학교수) · 혜원스님(동국대학교수) · 윤영수(동국대학교수) · 종석스님(승가대학교수) · 한경림(금강선학사) · 최봉수(동국대학교수) · 주명철(동국대학교수) · 정병조(동국대학교수) · 오국진(동국대학교수)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정규반(100명) 통신반(50명)	불교를 적극 실행 하고자 하는자	· 입학원서1통 · 주민등록본본 1통 · 인영합력사진 3매	98년 12월 15일~ 99년 2월 5일 입학금 15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불교대학 및 동산교육회관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 수일이 어려운 자만 지원가능

4. 입학일시 1999년 2월 6일(토) 오후 6시 (충무원 1층 불교회관)

5. 원서교부처

- 본대학 사무국 ☎ 732-1206~8, FAX 732-1207 (우)110-170 서울 충무로 견지동 13번지
 - 서울 : 보련각(조계사암) ☎ 02)733-0333 ○ 부산 : 불 서 보급 사 ☎ 051)246-4321
 - 대구 : 삼영불교서림 ☎ 053)425-4097 ○ 대전 : 보 문 서 점 ☎ 042)257-0161
 - 광주 : 불 일 서 점 ☎ 062)232-7542 ○ 제주 : 한라불교신문사 ☎ 064)55-2203
- * 특전사항 : ○ 상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교사를 거쳐 조계종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불교대학

99'학년도 상반기 불교 어린이 지도자 연수회

첨체된 불교 어린이 법회를 일으켜 세우고자, 서울·경기지역 지도법사님들의 원력으로 모였던 「어린이 법회 활성화를 위한 준비위원회」가 지난 12월 23일 간담회를 통해 삼보사 주지 지허스님을 회장으로 추대하고, 교계의 당면과제인 「지도자 전문화교육」을 본회의 제1차 추진 사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번 첫 연수회는 99학년도 신학기를 준비하시는 지도자를 위한 상반기 교육 자료 제공과 더불어 교사로서의 전문성 함양에 도움을 드리하고자 본 연수회를 실시하오니 참여하셔서 좋은 법연의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차 례	내 용	강 사	비 고
1	21세기를 위한 불교아동교육의 반성과 방향 모색	황학현	불교교육연구원장
2	어린이 종교교육 어디까지 가능한가? - 어린이 종교심리 연구 -	민영순	숙명여대 교수
3	왜, 어린이 법회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가 - 어린이법회의 활성화 방안-	법전스님	지장사 주지
4	신나고 재미있는, 그리고 효과적인 어린이 설법은? -설법 지도안 설계-	지원스님	삼보사 주지스님
5	법회를 결도는 아이 어떻게 지도 할 것인가? -부적가 지도 연구-	임숙희	경상대 교수
6	99' 상반기 법회 찬불가 율동(25주용, 30곡 제시)	송양섭	본회 연구위원
7	어떤 상황에도 아동을 제압(?)할 수 있는 게임-전체 게임-	배동순	본회 연구위원
8	노래와 율동, 그리고 게임-싱어-	이성훈	선재이벤트 대표
9	2부 활동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특별프로그램-	이성훈	선재이벤트 대표
10	불성개발을 위한 즐거운 조형미술 놀이	황학현	불교교육연구원장
11	찬불가를 쉽게 지도하는 법	이명선	이희미학원장
12	가까우면서 올바르게 익히기 어려운 불교의 기본적인식 -묵타사용법, 예불의식, 독경의식, 발우공양의식, 참선-	유익상	본회 연구위원
		덕수스님	명화사 주지

*일부 프로그램이 추가·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일시 : 1999년 1월 30일(토)~31일(일)(1박2일)
▶ 장소 : 서울 은평구 삼보사(☎352-6406)
(지하철 3호선 불광역하차 6번출구에서 역문 5거리 하나은행 옆)
▶ 참가비 : 30,000원(1월 27일(수)까지 사전 접수자는 30%할인)
(납입구좌:국민은행 812-21-0329-747/엄옥상)
▶ 식사 : 서울 은평구 삼보사(☎352-6406)
(지하철 3호선 불광역하차 6번출구에서 역문 5거리 하나은행 옆)
▶ 문의 : ☎ 725-2201~2 / FAX 725-2213

한국불교어린이포교연합회

회장 윤지현 / 사무총장 법전 / 연구실장 황학현 합장